

# 전통사회 여성의 사적(私的) 영역과 공적(公的) 영역에서의 노동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 Women's Labor in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Traditional Korean Societies

-From the Three Kingdom Period to the Choson Dyansty-

순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조 교 수 김 성 회\*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on National Univ.

Assistant Prof. : Kim, Sung-Hee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women's labo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traditional societies from the Three Kingdom Period to the Choson Dynasty. This study is based on review of historical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women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from the Three Kingdom Period to the Choson Dynasty worked not only in private places, such as in households as housewives, but also as slaves in public places such as government offices. Also, women as housewives worked not only to fulfill private needs, but also to pay taxes. In this sense, women in traditional societies participated in labor force in the public arena, not unlike women in industrialized societies who participate in labor market. This research provides a piece of counterevidence against the general belief that women in traditional societies only conducted private housework at hom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rethink gender roles in traditional societies.

▲ 주요어(Key Words) : 전통사회(traditional society), 여성(woman), 노동(labor), 성역할(gender role)

### 1. 서론

구조기능론자들은 산업화 이후 가족과 사회를 각각 안식처와 싸움터로 인식하면서 사회를 공적 영역, 가정을 사적 영역으로 이분화하였다. 그리고 부부간 역할 분담에 대해 남성이나 아버지는 생계를 담당하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이나 어머니는 가정의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런 구조기능론이 전제하는 것은 산업사회 이전 사회에서는 사회적 영역과 가정의 영역이 상호작용하였고, 여성과 남성은 생계를 담당하는 도구적 역할과 표현적 역할을 성에 따른 구분없이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활동 영역이 사

회와 가정,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걸쳐 있었고 여성도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사회 이전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노동에 대해 논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론에 대한 검증없이 여성의 노동 장소와 역할 수행 장소를 가정으로 한정하여 논의해왔고, 생계유지자로서보다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규정해왔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외출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이 사회적인 공적(公的) 영역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편견으로 전통사회 여성의 공적인 장소에서의 노동을 연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성의 공적인 정체감을 주제로 한 연구나 여성이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상호작

\* 주저자 : 김성희 (E-mail : ksh@sunchon.ac.kr)

용해 왔다는 사실을 연구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료에 근거한 명확한 규명 없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은 직관적으로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규정되었고, 여성의 노동은 가내에서 가족원을 위해 수행되는 사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전통사회의 여성들도 일부 상류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늘날의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처럼 가내에서 직조를 하여 가계를 운영하기도 하였으며, 임금노동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내생산물로 조세를 납부하여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공적인 성격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영역에서만 노동한 것이 아니라 장에 나가 자가생산물을 팔거나 타가(他家) 또는 관가(官家)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기녀나 의녀와 같은 특수직의 여성 뿐 아니라 많은 여성노비들이 타가(他家) 또는 관가(官家)에서 일하였는데 이러한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노비의 인구는 조선 초기에는 전 인구의 1/3-1/2 정도였다 하므로 공적인 영역은 이미 많은 여성들이 노동을 수행해 오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은 오래 전부터 가정이라는 사적인 장소에서도 공적인 성격의 일을 해오고, 사회의 공적인 장소에서도 일을 해왔지만 여성들이 공적 영역에서 노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여성을 생산자나 노동자, 생업운영의 주체자로서보다는 부인이나 주부, 어머니로서 더 인식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내노동을 일이라기보다는 가족원을 위한 사적인 일로 간주해왔으므로 전통사회의 가내노동이 공적인 성격을 가졌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여성의 노동을 사적인 것에만 제한해서 인식해 온 데는 전통사회 여성의 공적인 장소에서의 노동과 공적인 성격을 갖는 가내노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최근 여성학 또는 역사학에서 그동안 간과되어 온 여성의 삶을 재정립하려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이비용 외 다수, 1999;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김성희, 1999; 김성희, 2000; 김성희, 2001 등). 그러나 가내노동에 관한 관심은 매우 적은 편이고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조명한 연구도 많지 않다.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경우에도 주로 조선시대가 연구의 초점이었고 아직까지 각 시대별로 상세히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여성의 가내노동에 관한 사료는 수집도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여성이 어떤 노동을 어디서 어떤 조건 하에 수행해왔는가를 알고자 할 때 가내노동은 여성의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내노동에

대한 시대적 연구는 매우 일천하였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여성의 가내노동은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에 관한 박물관적 연구 결과 속에서 유추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물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유물 중심의 연구로는 여성의 가내노동 상황을 총체적으로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과 관련된 각종 사료를 통해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포함한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가내노동은 가족원의 소비를 위해 수행되기도 하였지만 조세납부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행되기도 하였다. 가내노동은 사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으므로 이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통사회 여성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을 밝히고자 하므로 수행목적이 조세납부나 가계부양을 위한 것이었던 가내노동은 오늘날의 경제활동인구인 무급가족종사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과 유사하다고 보아 공적 영역의 노동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명백한 공적 장소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가내노동과, 타가와 관가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도 가정 외부의 사회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이므로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의 노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제외한 가족의 소비를 위해 수행된 가내노동은 사적인 성격을 갖는 가내노동으로 분류하였다.

여성에 관한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대별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노동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작업 과정은 일부의 자료로써 전체를 설명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다 많은 논증 자료의 발굴과 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농경사회는 집단성을 강조하던 사회이고 변화가 많지 않던 사회이므로 특정 사례로써 시대의 특징을 기술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다.

전통사회 여성의 노동 실태를 고찰하면서 본 연구는 구조기능론에 따라 검증하므로 전통사회 여성을 연구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가내노동에 관한 사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므로 각 시대의 여성노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전통사회 여성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밝히므로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성의 생계부양자로서 또는 노동자로서의 폭넓은 삶의 궤적도 밝힐 것이므로 여성의 공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 II. 삼국시대의 여성노동

### 1.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

삼국시대 여성은 가족의 생명유지 및 생활영위를 위해 가내에서 음식만들기, 의복짓기, 직조하기, 농사짓기, 가축기르기를 하였고, 물을 길어오고 곡식을 찧는 일을 하였다.

전통적으로 부역의 신, 부뚜막의 신인 조왕신은 조왕각신이라고 불리는 여신이였다. 고구려의 불의 신 수신(燧神)이 지모신인 하백녀였던 것으로 보아(윤숙자·박록담, 1999; 전호태, 1999), 삼국시대에도 여성이 불과 관련된 일 즉 부역에서 조리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부역일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고구려 벽화 안악 3호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식을 장만하는 독립된 건물인 반딧간에 두 여인이 화덕 아궁이에 장작을 때고 시루를 얹어 음식을 익히고 그릇을 정리하고 있다(김기웅, 1994). 무용총 주실 우측 벽화에는 부역에서 만든 음식을 여인들이 나르고 있다(전호태, 1999).

삼국시대 여성은 급수와 관련된 일도 하였다. 안악 3호분 벽화에는 우물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그려져 있다(김기웅, 1994). 삼국사기 유리명왕 조에 주몽의 맏아들 유리가 새를 쏘며 놀다 잘못하여 물길는 물둥이를 깨뜨리니 부인이 꾸짖었다고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부녀들은 물둥이로 우물물을 길어 날랐다.

가락국의 경우 호수(戶數)가 100호에 7만 5천명인데 모두가 산과 들에 모여 살면서 우물을 파서 먹었고, 신라 동악(東岳)에는 우물이 하나 있어 요내(遙乃) 우물이라 했다(일연, 1994). 우물물이 식수로 이용되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샘물이나 강물도 부녀들이 길어다 썼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인들은 곡식을 찧는 일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여인들이 디딜방아를 이용하여 알곡을 찧었다. 안악 3호분 벽화에 디딜방아를 찧는 두 여인을 볼 수 있다(전호태, 1999). 평남 대동군 토성리의 낙랑유적에서는 화강암으로 된 맷돌이 출토되었다(이성우, 1985).

삼국사기 백결선생에 “이웃 마을에서 떡방아를 찧으니 그의 처가 절굿공이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곡식이 있어 방아를 찧는데 나는 아무 것도 없으니 어찌 이 해를 보내리요”라고 탄식하였다 한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여성들은 방아로 곡식을 찧어 떡을 마련하였다.

여성들이 빨래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 지철로왕(智哲老王)이 신부감을 찾는 과정에 “이 부락 재상(相公)의 딸이 여기에서 빨래(洗滌)하다가 숲 속에서...”라는 기록이 있다(일연, 1994). 또한 원효법사가 어떤 다리 밑에 웅 여인이 빨래하는 것을 보고 물을 청하였더니 여인이 더러운 물을 떠서 주므로 법사는 그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일연, 1994). 신분이 높은 집안의 딸을 포함하여 여인들이 개울이나 냇가에서 빨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은 바느질도 하였다. 신라의 김유신은 공을 차다가 일부러 춘추공의 옷자락을 밟아 옷끈을 떨어뜨리고 만누이 아해(보희)에게 꿰매드리라고 하니 거절하여 막내누이 아지(문희)에게 명하였다 했다(일연, 1994). 김유신이 춘추공과 누이를 혼인시키기 위해 일부러 옷끈을 떼고 이를 누이를 시켜 바느질케 한 것은 바느질이 여성만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부자집의 딸이 아버지에게 웅 남자가 매양 와서 잠자리를 치른다고 하니 “네가 긴바늘 실을 그의 옷에 찢러 놓아 보아라”하여 실 끝을 담장 밑에서 찾게 되고 바늘은 큰 지렁이 허리에 찢려 있는 것을 찾았다 하였다(일연, 1994). 상류층의 부녀자들도 바느질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의 여성은 베짜는 일도 하였다. 고구려 벽화 대안리 제 1호분에 여인이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 직녀도가 그려져 있다(김기웅, 1994). 당서(唐書) 신라에 “아내를 얻어야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아내가 없으면 의복을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직조가 여성들만이 하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직조는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이 하던 일이었다. 일반 계층의 여성이 직조를 하였던 것은 삼국유사의 연오랑 세오녀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일연, 1994). 이에 따르면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 연오와 세오가 일본으로 가서 해와 달이 빛이 없자 신라의 왕이 사자(使者)를 일본에 보내니 연오가 나의 비(妃)가 짠 세초(細絙)가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한다. 바닷가에 살던 여성이 비단을 짜다는 기록은 일반 여성들이 직조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직조는 여왕을 비롯한 왕녀도 하였다. 진덕여왕은 스스로 태평가를 지어 이를 무녀로 삼아 비단을 짜서 당나라에 바쳤다(일연, 1994). 신라 유리왕은 직조를 국가행사로 장려하여 육부(六部)를 정한 후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가을 7월 기망(16일)부터 매일 대부(大部)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하게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직조는 여왕과 왕녀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이 하던 일이었다.

신당서(新唐書)에 “남자는 경작하며 여자는 길쌈한다”고 했다(박남수, 1996). 남성이 주로 농사를 지었지만 여성도 농사에 관여하였다. 제왕윤기 후백제기에 “밭머리에 아이를 두고 부부가 밭을 매니 새는 날개를 퍼서 덮고 호랑이가 와서 찢먹이네”라는 기록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기록이 삼국유사에서는 “훤이 어려서 강보에 있을 때 아버지가 들에 나가 밭을 가는데 어머니가 밭을 나르면서

어린아이를 숲속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다(일연, 1994). 남자가 밭을 가는 동안 부인은 밭을 날라 농사를 돕기도 하였다.

여성이 농사에 관여하였던 것은 삼국유사에 원효법사가 남쪽 교외 논 가운데 이르니 백의를 입은 한 여인이 벼를 베고 있어 원효법사가 농담 삼아 그 벼를 달라고 청하니 그 여인은 벼농사가 흉년이 들었다고 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일연, 1994). 삼국시대의 여인들은 밭을 매고, 새참을 나르고 벼를 베는 등의 농사일을 하였다.

여성들이 농사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남성이 역(役)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남성을 대신하여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고구려 신하 개금이 임금께 청하여 동북과 서남에 장성(長城)을 쌓게 하니 이때 남자는 역(役)에 나가고 여자는 농사를 지어 공사가 16년만에야 끝났다”고 했다(일연, 1994).

이 밖에 여성은 가축을 기르는 일도 하였다. 삼국사기 열전 온달에 “공주는 말을 부지런히 먹이고 기르니 말은 나날이 살찌고 기운차게 되어갔다”는 기록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고구려 산상왕 12년 겨울 11월에는 제사에 쓰는 돼지가 달아나 관리가 그것을 쫓아가니 한 여자가 그것을 잡아주었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여성이 말을 기르고 돼지를 잘 다루었다는 것은 가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도 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삼국시대 여성이 가내에서 가축을 위해 한 일을 요약해 보면 물을 길고 방아를 이용해 곡식을 찧고 장작불을 피워 식사를 마련하였다. 개울이나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바느질하였으며 베 짜는 일을 하였다. 남자와 더불어 밭을 매고 새참을 나르고 벼를 베는 농사일을 하였고 가축 기르는 일도 하였다.

## 2.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삼국시대 여성은 가내에서만 일하지 않았다. 시장활동에도 적극적이었고 국가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을 이용해 공공사업을 수행하였다. 여성들은 타가(他家)에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노비로서 관가나 타가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궁중이나 사회단체에서 기술자로서 지도자로서 일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저자(市)에서는 여자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장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렸고, 여기서 부녀자들이 버드나무 광주리에 물건을 담아 팔았다(강만길, 2000). 여성들은 자가생산한 잉여물품을 공적 장소인 시장에서 교환하거나 판매하였다.

여성들은 부역에도 징발되었다. 고구려 봉상왕 때에 왕은 15세 이상 남녀를 징집하여 궁실을 수리하게 하였다. 신라에서는 영모사의 장유존사를 만들 때 여자들이 남자와 더불어 진흙을 운반하였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2000). 국가적이거나 공적인 일에 여성의 노동력이 이용되었다. 여성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타가에서 종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효녀 지은은 나이 서른 둘이 되어도 시집을 가지 않고 품팔이를 하거나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날이 갈수록 궁핍해져 몸을 팔아 종이 되어 쌀 10여섬을 얻었는데 종일토록 일해주고 저물어서야 돌아와서 밥을 지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노비로서 여성은 관가나 타가와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노동하였다. 신라 점해왕 때에 왜국 사신이 객관에 머물렀는데 왜사에게 “너희 왕을 염노(소금 굽는 노예)로 만들고 왕비를 찬부(밥 짓는 여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희롱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여성은 주로 밥짓는 노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일연, 1994)에 “아간(阿干)인 귀진의 집에 한 계집종이 있었는데 옥면이라 일컬었다… 주인은 그녀가 일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여 매일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루 저녁에 빵게 하였다”고 했다. 고구려 안악 3호분 벽화에는 부역의 시루 앞에 서있는 여인 머리 위에 아비(阿婢)라고 노비 이름이 적혀 있다. 자유의지가 아닌 신분강제에 의해 노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여성은 노비로서 관가와 타가에서 곡식을 찧고 밥짓는 일을 하였다.

노비는 주로 죄인, 죄인의 가족, 채무자, 포로가 된 자로서 충원되었다. 백제에서는 부인이 간음하면 남편 집의 비(婢)로 삼았고, 고구려에서는 죄가 있으면 여러 가(加:관리)들이 평의(評議)하여 죄인을 죽이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신라에서는 채무자로서 오곡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면 노비로 만들어 고용살이를 하게 하였다. 빈번한 전쟁으로 생긴 많은 포로도 노비가 되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미천왕 때 고구려는 낙랑군을 쳐서 남녀 2천여명을 노획하였고, 영양왕 때는 백제를 습격하여 남녀 3천명을 사로잡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에 “고구려의 호수(戶數)는 3만”이라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전쟁포로만 노비가 되었다고 해도 전인구 중 노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은 궁중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장인(匠人)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신라 궁중에서는 왕족의 용품이나 왕족에게 사여하는 물품 및 중국과의 교역품을 충당하기 위해 수공업관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박남수, 1996). 궁중수공업 관사는 삼국사기 직관지에 따르면 신문왕 때 본피궁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私母 1인, 조하방에 모(母) 23인, 염궁에 모 11인, 흥전에 모 6인, 소방전에 모 6인, , 찬염전 모 6인, 아니전에 모 6인, 기전에 모 8인, 침방에 여자 16인이 있었다.

삼국시대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일도 하였다. 신라에서는 여염집의 처녀로서 아름답고 어여쁜 자를 택하여 원화(源花)라 하여 무리를 모으고 인물을 뽑아서 이들에게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가르치게 하였다(일연, 1994). 인재를 뽑아 두 여자를 원화로 삼아 무리를 모으게 하였다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도력을 인정하고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종중(宗中)이라는 공적 영역에서도 특정 역할을 수행 하였던 것 같다. 김유신 문중의 재매부인의 경우 사후에 장사 지낸 곳이 재매곡(財買谷)이라고 죽은 자의 이름을 따서 불리었고 매년 봄철이면 그곳에 일문의 남녀들이 모여 잔치를 하였고 한다(일연, 1994). 이름을 따서 지명을 짓고 종중 행사가 그곳에서 열렸다는 것은 여성이 종중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 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공적 장소에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은 가내에서 남편과 더불어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에 평민으로 벼슬을 한 신도정이 매우 급료가 적었으나 “아내가 노력하여 살림을 장만하니 기쁠 뿐이다…나는 매복(梅福: 한나라 사람으로 처자를 버리고 신선이 된 인물)보다 더 무정했지만, 그대는 맹광(孟光: 夫耕婦織하며 동고동락한 東漢 양홍의 아내)을 부끄럽게 하였다”고 했다(일연, 1994).

여성들은 직조를 해서 가게를 보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직조물은 춘추공 시대에 배 한 필이 벼 30석 혹은 50석과 교환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일연, 1994). 직조물의 가치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아 여성이 직조한 것을 상품화할 경우 가게유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조물은 가계부양뿐 아니라 사회적인 용도에도 사용되었다. 삼국유사 선을 환생조에 망덕사의 중 선율이 저승에서 인간세계로 오는 도중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말이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곱게 짠 베를 침구 사이에 두었으니 그 베를 판 돈으로 경폭(耕幅: 경전을 베끼는데 필요한 비용)을 삼아 주시면 황천에서도 은혜가 되겠다”고 하였다(일연, 1994). 여성은 직조를 하여 사회에 기부하는 공적인 일도 하였다.

직조물은 조세로서 국가의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부세(賦稅)로 비단과 곡식을 받았고, 인세(人稅)로 삼베 5필과 곡물 5섬을 받았다. 백제에서는 부세로 배와 비단, 실, 삼, 쌀 등을 받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국가에서는 직물을 과(寡), 고(孤), 독자(獨子)나 수병(守兵)들에게 사여하였고 중국에 공납·교역하는데도 사용하였다(박남수, 1996).

이처럼 삼국시대 여성은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의복을 짓고 농사를 짓는 일 외에, 자가생산한 직조물을 이용하여 가게를 운영하거나, 자가생산한 물품을 조세로 납부하는 등의 공적인 성격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정이 아닌 사회적인 장소에서 노동력을 팔거나, 노비로서 관가와 타가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궁중에서 장인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또는 부역에도 징발되어 국가와 공공기관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II. 고려시대의 여성노동

### 1.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

고려시대에도 여성들은 가내에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마련하고 의복을 짓고, 직조를 하고 농사를 짓는 등의 일을 하였다. 고려 공민왕 때에 임박이라는 자는 노비가 없다고 해도 아내가 있으니 꼭 제 손으로 부엌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했다(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1991). 고려의 가정에서는 아내나 여자 노비가 있어 밥짓는 일을 하였다.

일반인이 즐겨 부르던 여요(麗謠) 쌍화점에 “만두가게에 만두 사러가니 색목인(色目人)이 내 손목을 쥐더이다… 술과는 집에 술 사러가니 그 집 아버 내 손목을 쥐더이다”라는 가사가 있다(이가원 외 3인, 1985). 고려시대에는 서민들의 출입이 잦은 만두가게와 술가게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음식점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일상식은 개별가정의 여성에 의해 마련되었던 것 같다.

여성들은 밥을 짓기 위해 방아를 찼었다. 고려의 가요(歌謠) 상저가(相杵歌)에 “들그덩 방아나 찼세 히애, 누렁고 까실까실한 쌀로 밥이나 지어서 히애,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옵고 히야해, 남거든 내 먹으리라 히야해 히야해”라는 가사가 있다(이가원 외 3인, 1985).

방아는 남녀가 같이 찼기도 하였다. 남녀가 방아를 찼고 키질 체질 하는 과정이 석평연이 지은 용미행(春米行)이라는 시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큰 색시는 동쪽 방아, 작은 색시는 서쪽 방아, 작은 서방님은 남쪽 방아, 큰서방님은 북쪽 방아… 큰 서방, 작은 색시 놀라며, 서로 말하며 익살로 웃음으로 왁작 왁작… 아낙네의 키, 남정네의 체가 싫지 않아, 찼거니 날리거니 까부르다가, 슬슬 일어서 부글부글 끓이도다(이능화, 1990).”

물을 길는 일도 여성이 하였다. 여요(麗謠) 쌍화점(雙化店)에 “드레 우물에 물을 길러 갔더니 우물의 용이 내 손목을 쥐어이다”라는 가사가 있다(이가원 외 3인, 1985). 고려시대에도 여성이 우물물을 길어 생활용수를 공급하였던 것 같다. 우물은 여자가 직접 파기도 하였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국조(國祖) 원덕대왕이 서해의 용녀에게 장가들어 돌아오니 용녀는 오자마자 “은으로 된 주발로 땅을 파고 물을 길어서 썼는데 지금 개성에 있는 대정(大井)이 그것이다(이화여자대학교, 1983)”고 했다. 가내에서 물을 공급하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다.

고려풍속에는 물, 쌀, 밥, 마실 것 등 모두 구리 항아리에 담아 머리 위에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다녔으며 지고 이는 것에는 물단지(물장)가 가장 많아 높이는 1척(30cm), 용량은 2말이었다(서경, 1998). 고려 여성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항아리에 담아 머리에 이어 날랐다.

고려의 여성도 바느질을 하였다. 여성은 어릴 때부터 길쌈과 바느질을 배워 직조와 의복손질에 많은 노력을 들였다. 이규보(1168~1241년)는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서 어린 딸을 애도하면서 “금년에 4살로 자못 능히 길쌈과 바느질을 배웠다”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고려도경에 “고려는 모시와 삼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베풀(布)을 입는다” 했다(서궁, 1998). 가족의 의복은 가내 여성들이 직접 직조하고 바느질해서 공급되었다.

길쌈은 서민 여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려시대 서민층이 즐겨 불렀던 서경별곡(西京別曲)에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새로 닦은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마는, 여의기 보다는 차라리 길삼베 버리고, 사랑하신다면 울며 울며 쫓겠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이가원 외 3인, 1985). 임과 이별하는 것이 길삼베 버리는 것에 비유된 것으로 보아 길쌈은 여성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쌈은 일반 부녀 뿐 아니라 사가(士家)의 부인들도 하였다. 이곡(1298~1351년)의 가정집(稼亭集) 절부(節婦) 조씨전(曹氏傳)에 “조씨는 30세도 안되어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고 50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밥냇으로 여공(女工)에 힘써 딸과 손자들을 먹이고 입히며… 손님접대, 혼인, 장례, 제사 비용을 마련하였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이승인(1349~1392년)의 도은집 선부인(先夫人)행장에도 “평소에 어머니께서는 베풀고 실뽕고 바느질하시는 수고를 일찍이 잠시도 쉬지 않으셨다”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원천석은 운곡시사(耘谷詩史)에는 원장흥의 어머니 조부인을 추모하면서 “길쌈하고 칭상(稱觴)함에 옛 현부(賢婦)를 본받았으니 평생의 정결을 누가 견줄손가”라며 여공을 기렸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곤궁한 사가의 부녀 뿐 아니라 부유한 상류층의 부녀도 길쌈을 하였다. 금자광록대부참지정사상장군김공부인 인씨 묘지에 “집이 본래 부유하여도 부인은 여자가 할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자손들이 말리자 부인은 길쌈과 누에치는 일은 여자의 일이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고려 여성은 빨래하고 다듬이질하는 의복관리에도 힘썼다. 고려도경에 “의복을 빨고 얼음 덩어리 같은 잣물로 명주와 마를 표백하는 것은 모두 부녀자의 일이어서 낮과 밤으로 열심히 일해도 감히 고생스럽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서궁, 1998).

고려 여성은 잣물을 이용하여 빨래를 한 다음 다듬이질도 하였다. 설손은 의수부도의사(擬戍婦擣衣詞)에서 “흰 이슬은 다듬이질을 적시고 다듬이 소리는 슬픔으로 퍼진다. 이 밤을 어이 새며 간 입은 언제 오리… 또다 또다 안방에서 다듬어 서리처럼 눈처럼 옷을 지어 글 적어 넣은 뒤 멀리 보내니 그 속에서 눈물은 피가 되도다…”라고 읊었다(이능화, 1990). 고려의 여성은 밤새 다듬이질을 하기도 하였다.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고려 여성도 농사를 지었다. 이달충(?-1385)의 제정집(霽亭集)에 실린 ‘농부 아내의 탄식’이란 시에 “계속된 장마로 끼니 거른 지 오래인데 문 앞에 보리는 이삭이 늘어졌네, 개이기 기다려 보리 베려 하였는데, 비가 다시 내리누나, 배 불리기 위하여 품팔이를 하였는데, 부른 배마저 쉽게 꺼지누나”, “남편은 흥건적에게 죽고 자식은 변방 지키러 가니 이 한 몸의 생계 쓸쓸하기만 하네, 장대를 꽃고 갖과 샷갓을 씌웠으

나, 새가 이마 위로 오르고, 이삭을 주우려고 다래끼(바구니)를 메니, 나비가 어깨를 치는구나”라는 글귀가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또는 남편을 대신해서 보리 농사를 짓고 이삭을 줍고, 보리 베기를 하고 새 쫓는 일을 하였다.

고려시대의 여성도 가내에서 방아를 찧고,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길어 밥을 지었다. 어릴 때부터 길쌈과 바느질을 배워 가족에게 의복을 제공하였고, 잣물을 이용해 빨래를 하였으며 다듬이질을 하고 농사를 지었다.

## 2.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고려시대에도 여성이 사회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시장에서 사고 파는 활동을 하였으며 공공의 장소에서 국가 사업을 수행하였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궁, 절 등지에서도 일하였다. 노비로서 관가와 타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성의 사고 파는 시장활동에 대해서는 고려도경(서궁, 1998)에 낮에 노천 시장이 발달하여 남녀노소, 관리, 공기(工技)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물물거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여성들은 고리작(柳箱)을 가지고 노천 시장에 가서 되(升) 단위로 패미(稗米)를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다.

여성들은 공공의 장소에서 역(役)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래 역역(力役)의 수취(收取)제도는 16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가 지던 의무였다. 농민의 역역(力役)은 성과 관아,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다(변태섭, 1987). 그러나 여성도 남성이 군역을 지는 동안 후방에서 역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고려사에 “주진(州鎭)을 두루 살피고 성책(城柵)을 수선하여 녹림(綠林)의 난을 면하게 하고자 하니… 남자들이 모두 싸움에 종사하고 부인들도 오히려 역(役)을 치르게 되어 수고로움과 고통을 참지 못하여 도망쳐 숨는다”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사가의 여성이 궁에서 관리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사에 “외척인 예부시랑(禮部侍郎) 이에(李預)의 처 왕씨(王氏) 등에게 상공 이하의 궁중에서 일하는 여관(女官)의 직무를 주어 왕태후의 궁관(宮官)으로 삼고 녹봉(祿俸)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정 4품의 관직에 있는 사람의 처가 궁관으로 녹을 받았다는 것은 사가의 여성이 관리로서 일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들은 노비로서 공적인 일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고려법에 따라 관청에는 여자 노비를 두기 때문에 왕부(王府)로부터 관청, 도관(道觀), 사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자 노비를 주어 공적인 일을 맡게 하였다(서궁, 1998).

고려시대 각 지방의 교통 중심지에는 정부가 설치한 술집이 있었다. 성종 2년에 성례, 낙빈, 연령, 영맥, 옥장, 희빈 등의 이름을 붙인 6개의 술집을 설치했다(강만길, 2000). 이 술집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숙박과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일의 특성으로 보아 이곳에서는 여성 노비가 일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여성은 사찰에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문종 10년 기록에 따르면 절에서는 술을 빚어 팔거나 채소를 가꾸어 파는 일, 기름을 짜거나 벌꿀을 따서 파는 일로 이윤을 크게 얻었다고 했다(강만길, 2000) 이러한 일은 대개 여성이 하는 일이었으므로 사찰에 지급된 노비여성과 여승은 상업활동에도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승은 직조로 절의 운영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충렬왕 때 한 여승은 흰 모시를 원성공주에게 바쳤는데, 가늘고 곱기가 매미 날개와 같고 꽃무늬까지 놓아 시정(市井)의 상인들도 전에는 못 보던 것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맹인재, 2000). 특히 미타사라는 여승 암자의 이타 등의 여승들은 모두 극히 가늘고 고운 면포 짜는 것을 업으로 삼았고, 북쪽 변방인 육진(六鎭)의 각 군에 있는 재가승처(在家僧妻)들은 삼베를 짜되 극히 가벼울 뿐 아니라 가늘고 고아 한 필이 한 바래대 안에 들므로 발내포(鉢內布)라 불렀다고 한다(맹인재, 2000). 고급 의료(衣料)가 여승들에 의해 직조되어 상품화되고 있었다.

고려의 관리로 6품의 벼슬을 가진 자는 녹으로서 전(田) 1백결(結)과 노비 15명, 7품의 관직을 가진 자는 전 50결과 노비 5명을 받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노비는 관직을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녹의 일부였으므로 노비인 여성은 국가경제상 화폐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노비 여성은 남성 못지 않은 노동력을 지니고 있었다. 고려도경에 “그들이 일할 적에 어깨에 뭇 힘이 없으면 등에 지는데 그 걸음걸이가 빨라 남자라도 따르지 못할 정도이다”라고 평가하였다(서경, 1998). 관노비는 나이 60세가 되면 역(役)에서 풀려났으므로 노비 여성들은 60세까지 일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궁에서 일하는 노비 여성의 지위는 낮지 않았던 것 같다. 고려사 공민왕에 “바느질하는 남자나 내료(內僚)의 여자에게도 옹주(翁主), 태주(宅主)로 봉한 것이 있으니 방자함이 분수를 넘어 존비의 체통을 잃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고 했다. 현종 때에는 상궁(尙宮), 상침(尙寢), 상식(尙食), 상침(尙針)의 직을 두었고, 충선왕이 궁주를 고쳐 옹주라 하였더니 충혜왕 이후에는 후궁의 여직(女職)에 높고 낮은 등급을 없애고 사비(私婢)나 관기도 역시 옹주, 태주로 봉하였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여성 노비는 타가(他家)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주가(主家)의 부역일과 육아를 맡아 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야은집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 읽는 소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으니, 부역일 하는 노비도 시를 읊으며 절구질하여 성현의 마을처럼 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이곡의 가정집에는 “한 여자 노비가 주인집 젓먹이에게 젓을 먹었는데 얼마 후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니 주인 여자가 노하여 매질하며 말하길… 밤낮으로 아

이를 돌보며 집안에만 있어라 하였는데 감히 사람을 출입시켰으니 죄가 있다”고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노비는 일상의 가사 뿐 아니라 주가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하였다. 고려사에 윤수태란 사람의 나이가 96세인데 아들의 나이 또한 69세로 늙어서 봉양하지 못하고 오직 한 계집종이 같이 살면서 돈을 벌어서 아침저녁의 식량을 대고 있다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노비는 신분세습에 의해 결정되어,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 그 자녀도 천민이 되었고, 노비와 양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낳은 자녀는 모두 노비가 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악행을 행한 경우에도 노비로 신분이 전락하였는데 그 예로 유부녀가 음란하면 자녀안(姦女案)에 기록하여 바느질하는 비(婢)로 삼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노비의 시장가격은 “종의 나이가 15세 이상 60세 이하이면 값이 배 백필이고, 종의 나이가 15세 이하 60세 이상이면 50필이며, 계집종의 나이 15세 이상 50세 이하는 백 20필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60필”이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여성 노비의 노동력은 남자 노비보다 사용기간은 짧으나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노비의 가치는 소나 말보다 높지 않았다. 고려사에 사람시장에서 주인은 노비를 파는데 값을 헐하게 매기니 개·돼지만도 못하다 했고 노비를 소나 말로 바꾸는데 말 1필에 노비 2·3명을 주고도 그 값이 부족하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노비에 대한 대우도 매우 열악하였다. 각 집마다 노비의 사역(使役)이 심하였고 혹 병이 들어도 치료해 주지 않고 길가에 버리기도 하며 죽어도 묻지 않았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고려시대의 여성도 삼국시대 여성과 마찬가지로 가내에서 공적인 성격의 노동을 하였다. 여성이 가내에서 생산한 직조물은 사회적으로 물품화폐로 사용되었다. 시장에서는 저포(모시)와 은병(銀瓶)의 가치를 표준삼아 교역을 하였다(서경, 1998).

화폐로 사용되던 포를 생산하기 위해 여성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였다. 고려사에 “포의 울이 거칠고 성글어서 점차 두서너새(升)로 전락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여자의 노력이 비록 수고로우나 백성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직조물의 가치는 고려사 원년에는 가는 배 한 필이 쌀 단되 값이나 되었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신라시대보다 가치는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직조물은 주요한 국가재정원이었다. 고려왕조는 조세(租稅), 역역(力役), 공부(貢賦)로부터 왕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얻었는데, 공부는 지방에서 포(布)나 토산물 등 현물을 통해 수취하였다(변태섭, 1987). 여성은 국가경제 운영에 필요한 공부를 납부하기 위해 가내에서 직조를 하였다.

국가에서는 포상물품 또는 빈민구제용품으로 직조물을 사용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83). 성종 때에는 효자인 차달 형제에게 각각 곡식 백석과 은사발 2개, 무늬비단 베를 합해 68필을 주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의 나이가 80인 경우 3품 이상인 자에게는 베 14필과 차 2근을, 서인으로 백세 이상인 자에게 베 20필과 쌀 10석을 하사하였다. 현종 때에는 백성으로 80세 이상인 사람과 중병환자 635명에게 베와 비단, 차와 약, 술과 음식을 하사하였다. 빈민에게도 제공되었는데 정종은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에 얼고 굶주릴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햇솜과 베를 주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모시와 견직물은 대송(代宋) 수출품으로 국제교역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황명수 외 다수, 1992).

여성이 가내에서 생산한 직조물은 가계 운영에도 사용되었다. 빈곤한 관리의 부인이었던 평량군부인 이씨(平凉郡夫人 李氏)는 “16세에 이공의 집으로 출가하였는데 이공이 후설(喉舌)의 직에 있었으나 매우 청렴결백하였고 부인도 내조하여 집이 몹시 가난하였으나 낮에는 길쌈하고 밤에는 바느질하며 부지런하여 계엄을 피우지 않으니 집안이 잘 다스려졌다”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84).

남편이 부역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부인들은 직조로서 가계를 운영하였다. 정몽주(1337~1392년)의 포은집에 정벌간 남편을 둔 부인이 “베짜는 것을 그만두고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돌려보니 금(錦)자가 새롭다”라고 읊은 글이 있다(이화여자대학교, 1986). 고려의 여성은 변방에 나가 있는 남편을 기다리며 베를 짜서 가계를 운영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여성도 가내에서 가족을 위한 일 외에 공적인 장소인 시장에서 활동을 하였고, 국가기관에서 관리로서 일하였으며 국가사업에 동원되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관가와 타가에서 노비로 일하기도 하였고 승려로서 절의 운영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여성이 가내에서 생산한 직조물은 가계운영에 사용되는 한편 사회경제적으로는 화폐, 국가의 재정원, 무역품 등으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 III. 조선시대의 여성노동

#### 1. 사적 영역에서의 노동

조선시대 여성들도 가내에서 가족을 위해 조리하고 바느질하고, 직조하고 농사를 짓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능화(1990)는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서 의류재봉(衣類裁縫)과 주식모의(酒食謀議)가 다 여자가 아니고서는 되지 아니하며 고치실과 명주, 모시, 무명 등 하나도 여자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고 시정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이나 논밭에서 밭갈고 씨뿌리는 일에도 부녀의 조력이 태반이라고 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어숙권은 “무릇 관청이나 사가(士家)에서 밥을 짓고 제구(祭具)를 공급하는 것은 모두 여인”이라고 하였다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1987)도 음식을 마련하는 일은 오직 부인이 맡아 하는 일이라고 했다. 조선시대에도 식사준비는 여성의 일이었다.

김홍도(1745-1810)의 풍속화 ‘주막’에 아낙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그네를 대상으로 밥과 술을 파는 주막, 장날 국수를 파는 음식점이 있었다. 그러나 일상의 먹거리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조선을 방문하였던 외국인 오페르트(1974)는 “중국의 빈촌에서는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밥장수, 떡장수, 죽장수를 여기서는 전혀 볼 수가 없다”하였다. 가족의 식사는 거의 대부분 개별가정에서 부녀에 의해 제공되었다.

식사준비를 위해 여성이 많이 수행한 일 중의 하나는 곡식을 찧는 일이었다. 쌀을 찧을 때는 물방아를 쓰고 연자방아가 있어 눈 먼 말이나 나귀를 종일토록 돌려 찧으나, 시골농가에서는 디딜방아를 써서 쌀·보리·수수·기장 등을 찧었다. 방아찧기는 부녀가 해야 할 일에 속하였는데 부녀들은 아침에는 밥을 짓고 낮에는 점심을 밥에 이어 나르고 저녁에는 보리를 말리었다가 절구질하니 하루 종일 쉴 사이가 없었다(이능화, 1990).

물을 길는 일도 부녀의 일이었다. 바깥출입을 잘 하지 않는 풍습에 따라 물은 주로 어린 여자아이가 길어오거나, 첫 아기를 낳은 부인이 길어왔다(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0). 김삼의당(1769-?)의 시에 “시누이는 물길어다 보리밥 짓는다”고 하였다(허난설현 외 다수, 1973).

오페르트(1974)의 기행문에 “조선인의 식생활은 아주 간소해서 그들이 일상 접하는 요리 이외의 것을 맛 볼 기회를 만났을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하였다. 일반 가정에서는 장류와 김치 등의 저장식품이 반찬의 주종을 이루었고 부녀들은 철마다 이들 저장식품 만들기에 힘썼다.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것 뿐 아니라 옷을 만들고 의복을 손질하는 일도 부녀가 하였다. 부인으로서 바느질하고 길쌈하고 음식을 마련할 줄 모르면 장부(丈夫)가 시서(詩書)와 육예(六禮)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었다. 1890년 경 조선에 거주했던 조지해버존스 부부는 “조선의 남자 치고 바늘을 붙잡는 이가 없다”고 하였다(김영희, 1938). 여성들이 바느질하는 모습은 조영석(1681-1761)의 풍속화 ‘바느질’에서 볼 수 있다.

사가(士家)의 부녀도 바느질을 즐겨하였다. 바늘과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는 규중(閩中) 여인의 일곱 벗이었다(허동화, 1997). 사가의 부녀가 바느질로 밥을 지내는 모습은 허난설현(1563-1589)과 김삼의당(1769-?)의 다음 시구(詩句)에서 엿볼 수 있다. “비단 폭을 가위로 걸걸이 잘라, 겨울 옷 짓노라면 손 끝 시리다, 옥비녀 비껴들고 등잔 가를 저음은...”, “낭군 옷 마르려고 가위잡고는, 병풍 사이 남은 촛불 자주 돌우네...”(허난설현 외 다수, 1973).

세탁도 부녀의 일이었다. 김홍도(1745-1810)의 풍속화 빨래터



에는 개울가에 여인들이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고 찌고 널어 말리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다. 부녀들은 빨래를 한 다음 풀먹이고 다듬이질하고 다림질을 하는 등의 의복 손질을 하였다. 이덕무(1987)는 “남자의 옷이 빨았는데도 때가 남아 있고 케맨 것이 성기고 터진 데가 있고, 풀 덩어리가 엉겨 붙어 있고, 다리미의 불이 튀어 구멍이 나고, 구겨지고 얼룩지고, 넓고 좁음이 대중이 없는 것 등은 다 부인의 책임”이라고 했다.

다듬이질은 빨랫감을 다듬잇돌 위에 올려놓고 7~8시간 정도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 하는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이 외국인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프랑스인 듀크로프는 “서울은 다듬이질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세탁소이다. 한국의 여인은 남편을 돌보이게 하기 위해 온갖 정성을 바친다. 그리고 이것을 행복으로 여긴다”고 기록하였다(백성현·이한우, 1999).

직조도 여성의 공력(工力)으로 이루어졌다. 이익(1681-1763)은 곡식은 남자로부터 생산되고 포백(布帛)은 여자로부터 생산된다고 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1990). 여성은 일차적으로 자가 소비를 위해 직조를 하였는데 이는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의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은 가난하여 모아둔 재산이 없다. 농사지는 즉 먹으며 포를 잔 즉 입는다(이복만, 1948).”

직조는 면포와 마포 견직물 생산이 주종을 이루었고 전국적으로 직조를 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면포(綿布)의 경우 함경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함경도와 강원도에서는 마포(麻布)를 생산하였다.

직조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이 참여하였다. 잠전(蠶繭: 누에치기)은 국가적으로 종상지법(種桑之法)이 있어 후비(后妃)도 친히 누에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조선시대 민화 ‘경직도’에는 양반 의복인 회장저고리를 입은 부녀들이 직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조자용·김철순, 1992). 사가(士家)의 부녀가 누에치기를 하였다는 것은 오희문(1539-1613)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집사람이 치는 누에는 오늘 다 올랐고, 딸들의 누에는 오늘 비로소 오르기 시작했으니 일 안으로 다 익을 것이다(오희문, 1990).” 조선시대에도 직조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여성이 하던 일이었다.

조선시대에도 직조는 여성의 일이었지만 농사는 남성의 일이었다. 이익(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곡식은 남자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남자는 곡식을 가장 아껴야 하는 것인 줄을 알지만 부인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포백은 여자로부터 생산되기 때문에 부인은 포백(布帛)을 가장 아껴야 하는 것인 줄 알지만 남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90).

남성이 농사를 짓기는 하였지만 부인도 밭일과 논일을 하였다. 조선시대 민화(民畵) ‘경직도’와 이한철(1808~19세기 후반)의 ‘경직도’에 남성과 더불어 모를 심는 부녀가 보이고, 김홍도(1745-1810)와 조영석(1686-1761)의 풍속화에는 부녀가 농부들

에게 새참을 갖다주는 것을 볼 수 있다(이기백, 2000; 정병모, 2000). 마군후(19세기)의 풍속화 나물 캐는 여인에는 들에서 나물을 캐는 여인과 일손을 멈추고 나무 밑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는 여인이 그려져 있다(이동주, 1981).

여성들도 남성을 도와 모를 심고, 새참을 나르고 들에서 나물 캐는 일을 하였으므로 조선 각 지역에서 봄과 여름 사이에 여자가 밭과 논에서 제초하거나 모내기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었다(이능화, 1990). 관북에서는 경작 뿐 아니라 목양(牧養)까지도 여성이 하였다(최남선, 1944).

양반 부녀도 밭일을 하였다. 송익필(1534-1599)은 구봉집(龜蜂集)에서 가난한 선비들의 아내는 밤에는 베를 짜고 낮에는 김을 댔다고 했다(이화여자대학교, 1990). 김삼의당(1769-?)은 “해가 내 등을 구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네, 가라지를 날날이 뽑아 긴 밭고랑을 다 마치니...”라고 밭일의 고달픔을 시로 썼다(이혜순 외 다수, 1999). 윤두서(1668~1715)의 나물 캐는 두 여인의 그림에는 회장저고리를 입은 양반 여인이 종인 듯한 여성과 나물을 캐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이 가내에서 가족을 위해 수행한 일을 요약해 보면 물을 길고 곡식을 찧어 밥을 지었다. 계절마다 저장식품을 만들었고, 바느질하고 길쌈하는 일을 하였다. 개울에 나가 빨래를 하고 풀먹이고 다듬이질하고 다림질을 하였다. 직조는 거의 전국적으로 모든 계층의 여성이 하였다. 농사는 남성의 일이었지만 여성도 남성과 더불어 모를 심고, 새참을 갖다주고 나물 캐고 김매는 일을 하였다.

## 2.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조선시대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달리 유교적인 질서가 확립되면서 여성의 활동을 많이 제한하였다. 고려시대까지 비교적 자유로웠던 바깥출입이 유폐풍습으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남녀유별에 따른 내외법에 의해 여성들은 가정 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그러나 일반 여성들은 여전히 시정(市井)에서 팔고 사는 일을 하였고 노비 여성들은 타가와 관가 등의 공적인 장소에서 계속 일하였다.

조선 여성들이 시장활동을 하였던 것은 풍속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득신(1754~1822)의 귀시도(歸市圖)에 장에서 돌아오는 남자들 속에 한 여인이 머리에 물건을 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태호, 2000).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평양감사향연도에는 구경꾼 속에 머리에 팔 것을 이고 행상을 하는 여인들이 그려져 있다. 신윤복(18세기 중엽~19세기 초반)의 어물장수 풍속도에서는 행상하는 여인을 볼 수 있다. 영남 일부와 관북 전체에서는 시장에서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팔며 흥정하는 이가 거의 여성이었다(최남선, 1944).

소수의 여성이기는 하나 상인이나 나그네를 상대로 음식을 파는 여성도 있었다. 김홍도(1745-1810)의 주막 풍속화와 신윤복

(1758- ?)의 풍속화에 주막집에서 일하는 아낙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은 조직적으로 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여인전이 있었고, 보부상(保負商)에 여상단(女商團)이 있었다(임인영, 1987).

부녀의 외출을 제한하는 유폐풍습과 남녀 유별을 요구하는 내외규범은 한편으로는 유통매개자이자 외부 세계의 정보제공자로서 활동하는 다른 여성을 필요로 하였으므로 여성의 가외(家外) 활동이 허용될 수밖에 없었다.

가내유폐의 풍습이 강요되었던 양반 부인도 직접 장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노비를 통해 식품과 의류를 제조하여 장에 내다 팔거나 물물교환 하여 가게를 운영하였다. 1864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복선화음가(福善禍淫歌)에는 양반 부녀가 가난한 가정을 꾸러가기 위해 밭을 개간하여 소채를 심어 장에 내다 팔았다고 했다(이정옥, 1999).

조선시대의 선비는 유교 이념에 따라 생업 운영을 경시하였으므로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들이 가내생산물을 팔아 가게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역사학자 최남선(1944)은 “한경(서울)에서 사인(士人)이라는 남자는 아무리 궁하나 속수무책 하거늘 안에서는 바느질, 세탁 외에... 박물(博物)을 판다 하여 온갖 내조로써 가게를 버터가는 것이 도리어 비장의 느낌을 주었다”고 했다.

조선시대 여성도 사노비와 관노비로서 타가(他家)와 관가에서 일하였다. 조선초기에 노비는 전 인구의 1/3 이상 1/2을 점유하고 있었다(지승종, 1997). 공노비로서 비자는 궐내와 중앙의 각사(各司), 지방의 관아, 역(驛), 향교 등의 관청에 소속되어 궁녀 혹은 의녀, 기녀 등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신역(身役)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포를 제작하여 납부하였다.

공노비는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신공과 신역을 면제하였으므로 16세에서 59세까지 국가 기관에서 일하였다(윤국일, 1990). 사노비는 주가에 종속되어 주가의 가사와 농사일을 돌보거나 주가 외부에 살면서 1년에 면포 2필을 납공(納貢) 하여 주가의 가계에 기여하였다.

여성이 가내에서 생산한 직조물은 가족원이 소비하기도 하였지만 상품화되기도 하였다.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양반가정의 혼자된 여성 또는 가난한 가정의 여성들에게 직조는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었다.

이능화의 기록(1990)에 “가난한 집으로 이를진대 부녀가 직조를 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니 스스로는 치마저고리 제대로 없는 이가 많았다. 농가의 집집 부녀가 무명 짜기를 정업으로 하여 시골에서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다. 이들 거리가 부녀의 길쌈으로 기초를 삼아 점점 업을 불리어 나간 사람들”이라 했다.

조선시대 면포의 값은 16세기말에는 쌀 4두(斗)가량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고 18세기 중엽에도 5승의 무명이나 삼베 1필은 쌀 4두와 그 가치가 같았다(김성희, 2001). 정다산은 ‘일직부녀승삼농부(一織婦女勝三農夫)’라 하여 직조하는 부녀 1인이 농부 3인

보다 낫다고 하였다(김영호, 1972). 여성이 직조를 하여 사회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농사를 짓는 남자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직조물은 가계운영에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납세물로서 주요한 국가재정원으로 사용되었다. 국가에서는 양역세로 남정(男丁) 1인당 면포 2필(쌀 12斗)을 징수하였고, 균역법에 따라 남정(男丁) 1인당 면포 1필을 징수하였다(김성우, 1997). 징수된 직조물은 군사와 관리의 녹봉으로 지급되었고 국외로도 수출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마포와 면포는 물품화폐로 통용되어 중요한 유통수단의 역할도 하였다(윤국일, 1990; 황명수 외 다수, 1992).

조선시대 여성의 공적인 노동을 요약해 보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보다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의 교환 판매활동을 하였고, 상업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관노비와 사노비로서 타가와 관가 등의 공적인 장소에서 노동하였다. 가내에 유폐된 중상류계층의 여성들도 가내에서 가족원을 위한 사적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직조나 농사일을 통해 사회경제와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공적인 성격의 노동도 수행하였다.

#### IV. 결 론

삼국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주로 식사준비와 직조하기, 의복만들기, 농사짓기, 장보기 같은 가내노동을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방아를 찧고 우물물을 길어와 식사를 마련하였으며 개울 또는 냇가에서 세탁을 하고, 베풀로 직조한 옷감을 실과 바늘로 바느질하여 의복을 지었다.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밭일과 농사일을 하였다.

전통사회의 여성은 가내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등 가족을 위한 사적인 성격의 노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직조를 함으로써 가게를 부양하거나 국가운영에 필요한 조세를 납부하는 등 오늘날의 무급가족종사자가 수행하는 경제활동과 같은 공적인 성격의 노동도 수행하였다.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어느 시대나 일반 여성은 자가(自家)의 의복조달과 조세납부, 가계부양을 위해 직조를 하였고 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일부 부녀는 가계부양을 위해 직조를 하였다. 전통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은 대부분 가내에서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성격의 노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사회의 여성은 일부이기는 하나 노동 공간에 있어서도 가정이라는 사적(私的) 영역에서만 일하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관청에 소속되어 일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며, 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노비로서 여성은 자신의 가정이 아닌 주가(主家)와 관가

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였다. 사노비(私奴婢) 여성의 경우 오늘날의 가사고용인처럼 타가(他家)에서 집안일을 맡아 돌보았고, 공노비(公奴婢) 여성은 오늘날의 공무원 직업여성처럼 국가기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조선시대 초기에 노비는 인구의 1/2-1/3까지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 여성 인구를 절반으로 보더라도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던 여성은, 현재 취업여성이 전체 여성의 5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는 신분 강제로 거의 무급으로 일하였지만 이들이 아니었으면 주가와 관가에서는 명백히 임금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이들은 현대의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과 활동은 흔히 산업사회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취업기회가 확대되어 남성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생겨난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성이 노동자로서 가계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을 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노동한 것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갖는다.

시장이라는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만 보더라도 여성의 시장활동 참여는 산업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사고파는 시장활동은 삼국시대부터 여성이 수행해온 일 중의 하나였다. 삼국시대 여성의 시장활동은 꽤 활발하였고 유패풍습이 심하였던 조선시대에도 여성이 시장에서 사고파는 활동은 계속되었다. 전통사회 여성들은 소비자로서 뿐 아니라 판매자로서 가정 밖의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까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규정함에 있어서 가내에서 사적인 역할만을 수행해 온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노비계층을 제외한 일부 계층의 역할에 국한된 견해이고, 일부 가내노동만으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사회의 취업여성과 마찬가지로 전통사회의 여성도 생산물을 통해 가계와 국가경제에 기여하였고 신분강제적이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타가(他家)와 공적 기관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운영을 가능케 하고 부를 증가시키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통사회의 여성들이 공적인 성격을 지닌 노동과 공적인 장소에서의 노동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의 검토로부터, 구조기능론이 전제하듯이 전통사회 여성은 생계유지자로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동인구로서 다양한 수단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까지 폭넓은 고유의 노동영역을 확보하고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의 확인은 여성들의 공적 정체감을 재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접수일 : 2002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1월 4일

**【참고문헌】**

강만길(2000). **한국상업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대민족문화연구소(1980). **한국민속대관**.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기웅 해설(1994). **고구려고분벽화**. 서울: 서문당.  
 김성우(1997). **농민의 조세부담**. 한국역사연구회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98-209). 서울: 청년사.  
 김성희(1999).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49-158.  
 김성희(2000). **조선시대 비자의 경제활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69-78.  
 김성희(2001). **여성의 직조노동과 지위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67-82.  
 김영호(1972). **조선후기 수공업의 발전과 새로운 경영형태**. 동아문화연구원위원회편. **19세기의 한국사회(171-217)**. 서울: 대동문화연구원.  
 김영희(1938). **외국인이 본 40년 전 조선부인**. **조선일보사 여성**, 1938. 12. 20-29면.  
 맹인재(2000). **한국의 민속공예**. 서울: 청목.  
 민족문화추진회편 (1985). **대동야승1**.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박남수(1996). **신라수공업사**. 서울: 신서원.  
 백성현·이한우(1999).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서울: 새날.  
 변태섭(1987). **한국사통론**. 서울: 삼영사.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역(1991). **이조실록: 세종실록**. 서울: 여강출판사.  
 서궁·정용석·김종윤 공역(1998). **선화봉사 고려도경**. 서울: 움직이는 책.  
 에른스트 오페르트·한우근 역(1974). **조선여행**. 서울: 일조각.  
 오희문·이민수역(1990). **쇄미록**. 서울: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윤국일(1990). **경국대전연구**. 서울: 신서원.  
 윤숙자·박복담(1999). **우리의 부역살림**. 서울: 삶과 꿈.  
 이가원·장덕순·박성의·양주동(1985). **원역 향가/여요**. 서울: 서음출판사.  
 이능화·김상역 역(1990). **조선여속고**. 서울: 동문선.  
 이덕무·김종권 역(1987). **사소절**. 서울: 명문당.  
 이동주(1981). **우리나라의 옛그림**. 서울: 박영사.  
 이배용 외 13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 서울: 청년사.  
 이북만(1948). **이조사회경제사**. 서울: 대성출판사.  
 이성우(1978). **고려 이전 한국식생활사연구**. 서울: 향문사.  
 이정옥(1999). **내방가사의 향유자**. 서울: 박이정.  
 이태호(2000). **풍속화**. 서울: 대원사.  
 이혜순·정하영·성기옥·강진옥·이동연·박무영·조혜란(1999). **한국 고전여성작가 연구**. 서울: 태학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83).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중 새편(상)**.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84).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고대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86). **한국여성관계자료집 중 새편(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90).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  
**세편(문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일연·리상호 역(1994). **신편 삼국유사**. 서울: 신서원.
- 임인영(1987). **한국근대여성의 경제활동참여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편.  
**한국근대여성연구(77-112)**.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 전호태(1999).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서울: 풀빛.
- 정병모(2000).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 조자용·김철순 편저(1992). **민화**. 서울: 웅진출판.
- 지승종(1997).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서울: 일조각.
- 최남선(1944). **고사통**. 서울: 삼중당.
-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2000). **우리 여성의 역사**. 서울: 청년사.
- 허난설헌 외 다수(1973). **한국명저대전집**. 서울: 대양서적.
- 허동화(1997). **우리규방 문화**. 서울: 현암사.
- 황명수·김병하·신두휴·김성수·고승희·이광주·황완성 (1992). **한국  
 의 시장상업사**. 서울: 신세계백화점 출판부.